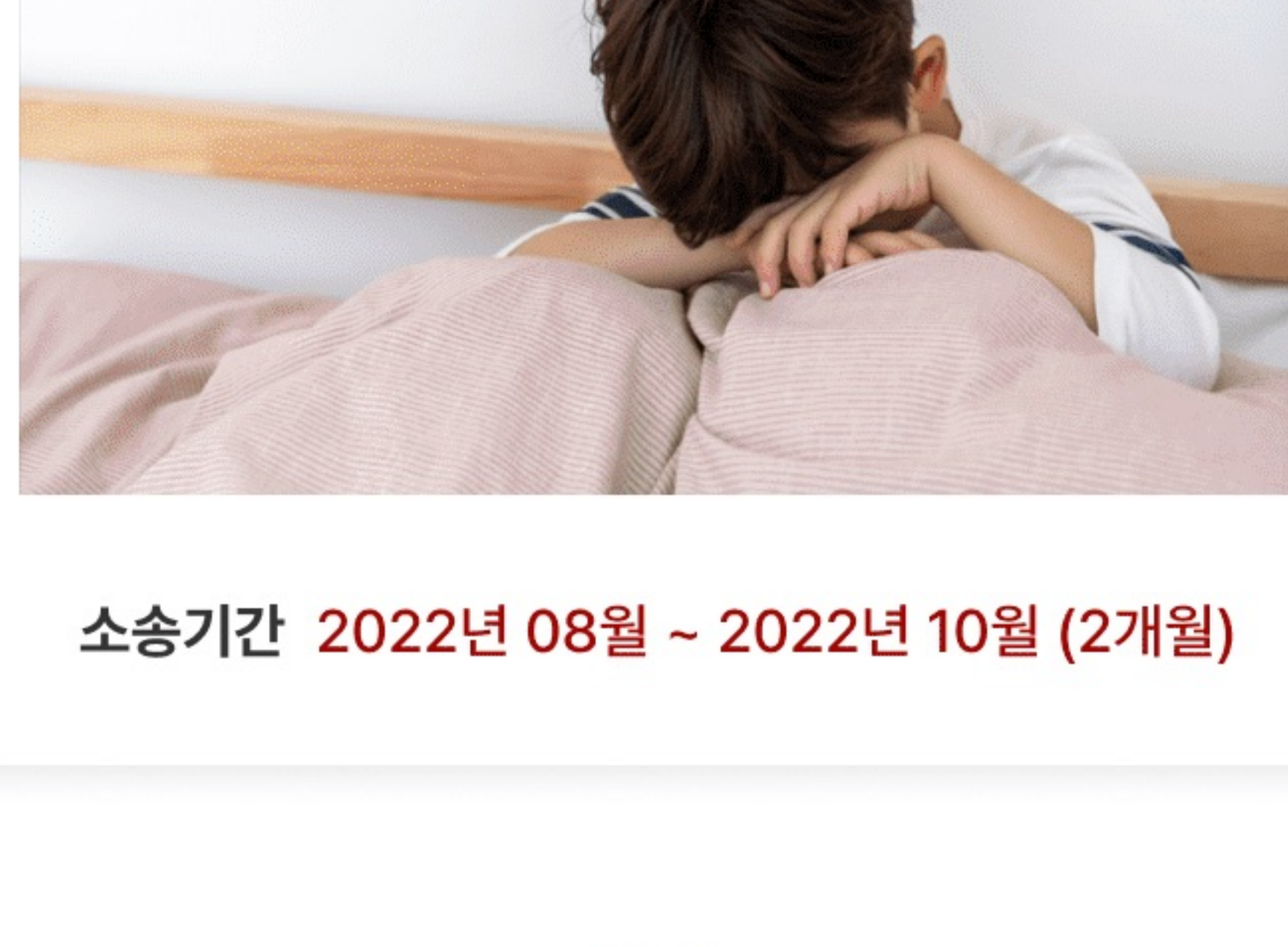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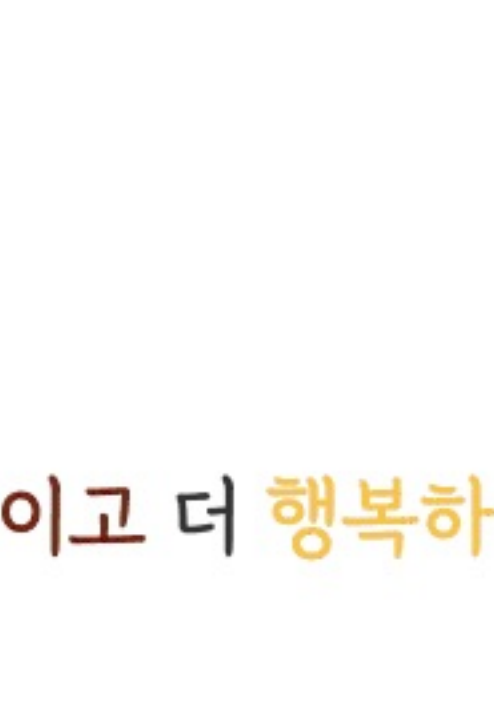


자녀의 복리와 원만한 성장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기간 2022년 08월 ~ 2022년 10월 (2개월)



양육권 변경

"자녀가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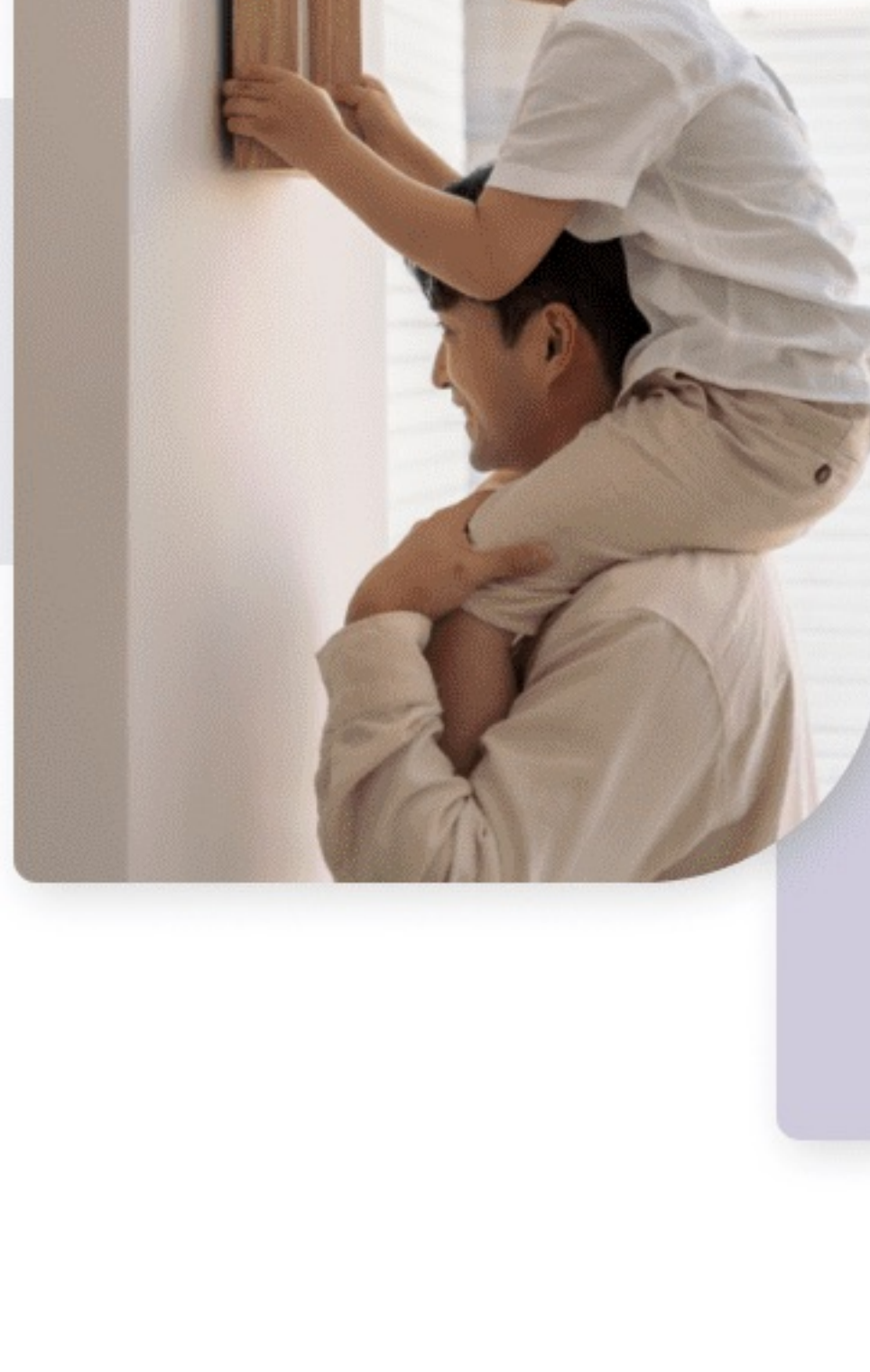
"아이가 전 아내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지역 : 대전
결혼기간 : 5년
자녀 수 : 2명
관할법원 : 대전가정법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전 아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



청구 사유

의뢰인은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뒤 재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아내의 자녀 2명과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 1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정서, 원만한 성장, 복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아이는 전 아내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STORY



의뢰인은 약 5년의 결혼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을 통해 전 아내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에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아내로 지정하였지만, 두 자녀 중 첫째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은 재혼을 하였고 현재 아내의 자녀 2명과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 1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 원만한 성장, 복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전 아내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PROCESS



법무법인대세 방문 · 상담



전담팀 배정



소송제기

01 사건수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길 희망하였습니다.

02 사건검토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자녀가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자녀의 정서, 원만한 성장, 복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전 아내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되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희망하셨습니다.

03 소송제기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는 자녀의 의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자녀의 양육권자를 의뢰인에서 전 아내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전 아내가 첫째 자녀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 의무가 있고, 양육할 정당한 권원을 가져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째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SULT

법무법인대세

친권 및 양육권 변경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이혼
- 이혼소송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성공
- 양육비 변경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KEY POINT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만큼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대세

Copyright © 법무법인 대세